

發明教室

發明으로 成功한 사람들의 이야기

활성 무기질비료 발명인

(株)유디아 미네랄 柳在滿 사장



〈柳在滿 사장〉

'88전국우수발명품전시회 은상에 이어 '88서독국제발명전에서 영예의 금상을 차지한 (株)유디아 미네랄 柳在滿 사장은 발명 이론가로서도 명성을 떨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특허청이 실시한 전국 순회 강연도 다녀온바 있으며, 요즘은 방송출연까지 겹쳐 눈코 뜰새가 없다며 즐거워하고 있다.

발명 외길 인생을 살아온 柳

사장은 미네랄에 관한 선구자로 손꼽히고 있다.

柳사장의 미네랄에 관한 발명은 정수기·음료·건미 비누·무기질 비료등이 모두 상품화되어 국민 보건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柳사장이 지금까지 개발해낸 고안은 1천건이 넘고 있으며, 획득한 특허만도 1백30여건에 이르러 발명을 통한 산업발전에 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柳사장이 활성 무기질비료에 관심을 갖은 것은 지난 70년. 영농연구회 연구위원으로서 학자간 토론회에서 농토의 개질의 필요성을 확인하면서 부터였다.

柳사장은 이 발명을 위해 81년까지 바이오 미네랄 연구와 함께 주변 자료조사 및 연구를 계속하여 같은해 특허출원까지 마쳤다. 그리고 87년 특허 제 23976호로 등록을 받고, '88전

국우수발명품전시회에 출품하여 은상을 차지한후 자신의 바이오 미네랄 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상품화하였다.

『양질 토석의 활성화와 인체 필수 무기질 영양소의 혼합 및 각종 비료성분(예 : N, P, K 등)을 배합한 것이지요』

柳사장에 따르면 이 비료는 토질개량·병해예방·식량증산에 적격이라고 한다.

柳사장은 기업화 방안으로 원료는 기존 회사에 공급하고, 완제품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제 발명기업인으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한 柳在滿 사장. 그는 최근들어 미네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기존 발명품의 활발한 생산 판매와 함께 새로운 미네랄 제품 개발을 위해 오늘도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